

금리폭등 대비 서민대출금리 안정화를 위한 현장 방문**오직 국민! 오직 민생!
서민들의 고통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계부채대책팀'(팀장 송기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6월 17일(금) 14시부터 명동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를 방문하여 서민 대출금리 폭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금리폭등 대비 서민대출금리 안정화를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고 한국은행 역시 오는 7월경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 서민 대출금리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물가상승 상황에서도 대출부담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일명 '스크류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관의 공동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계부채대책팀'은 생계대출, 부동산 대출 등 서민금리 안정화를 위해 그 첫 번째 행보로 '전국은행연합회'를 방문하여 서민대출금리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이번 일정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함께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 대책팀' 송기현 팀장을 비롯한 김영주, 오기형, 이동주, 이용선, 이정문, 정일영, 정필모, 천준호, 최기상(가나다 순) 의원 등이 참석하여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과 함께 기준금리 급등에 대비하여 서민대출금리 안정화를 위한 은행권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문으로 서민대출금리 안정화를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며, 가계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해답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2. 6. 16.

[참고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

금리폭등 대비 서민대출금리 안정화를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안)

-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14:00~15:00, 전국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간담회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 빌딩 회의실(서울 중구 명동 11길 19)
- 참석 대상자
 - (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송기현 의원(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 김영주 의원, 오기형 의원, 이동주 의원, 이용선 의원, 이정문 의원, 정일영 의원, 정필모 의원, 천준호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2명
 - (협회)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이호형 전무, 김평섭 상무(여신담당) 등
- 주요 내용 : 기준금리 급등에 대비하여 서민대출금리 안정화를 위한 은행권의 대책 촉구 및 협의
- 진행순서 ※ 사회 : 정일영 의원(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시 간		소요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14:00	14:10	10'	[참가자 모두 발언] ▪ 참석자 소개 ▪ 박홍근 원내대표 모두발언 ▪ 김성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 송기현 가계부채대책팀 팀장 모두발언	안내: 은행연합회 회장	언론 공개
14:10	14:25	15'	[현황 브리핑] - 내용 : 은행권 여수신 동향 및 금리변동에 따른 대응 현황	발표: 은행연합회 임원	
14:25	14:55	30'	▪ 자유 토론		언론 비공개
14:55	15:00	5'	▪ 박홍근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